

세 · 번 · 상 ·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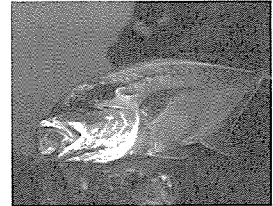
참다랑어(참치: bluefin tuna)

학명은 *Thunnus thynnus*이고, 농어목 고등어과의 바닷물고기이다. 크기가 매우 크며, 살은 붉은색을 띤다. 회, 초밥 등으로 먹으며, 육질이 곱고 맛이 매우 좋아 최고급 어종에 속한다. 참치는 고등어과에 속하는 등푸른 생선의 대표적인 어종으로 한국에서는 참다랑어(강원도에서는 참치), 일본에서는 마구로(真墨), 미국에서는 튠너(tuna)라 부른다.

북대서양에 서식하는 종의 경우 최대 몸길이 3m, 몸무게 560kg 정도까지 성장한다. 몸은 뚱뚱하고 방추형에 가까우며 몸높이는 약간 높은 편이다. 주둥이는 길고 끝이 뾰족하며 입은 크다. 몸 빛깔은 등 쪽은 청색을 띤 검은 색, 중앙과 배 쪽은 은회색 바탕에 흰색 가로띠와 둥근 무늬가 있다. 전장 30~60cm의 어릴 때에는 몸 옆에 10~20개의 가늘고 광택이 있는 백색의 세로띠가 있다. 작은 둥근 비늘이 몸 전체를 덮고 있다. 백다랑어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가슴지느러미가 짧은 것이 참다랑어이다.

태평양·대서양·인도양의 열대·온대·아한대 해역에 분포하며, 분포지역에 따라 북반구에 서식하는 북방 참다랑어와 3대양의 남부에만 서식하는 남방 참다랑어 2종으로 나뉜다. 횡감으로 사용하는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등의 “다랑어류”와 통조림을 만드는 입이 뾰족한 황새치, 백새치 등 “새치류”로도 구분할 수 있다. 산란기는 대만 근해에서는 4~6월, 우리나

라 동해에서는 8월이며, 주 산란장은 우리나라 동해 남부 해역과 대만 북부 해역이다. 자원보존을 위해 해역별로 어획량이 제한되어 있다.



해수면 바로 아래에서 헤엄치며, 때때로 연안 가까이에 나타나기도 한다. 봄, 여름에는 북쪽으로 이동하고, 가을에는 남쪽으로 이동한다. 무리지어 다니는 멸치, 꽂치, 청어 등을 주로 먹으며, 새우류, 게류, 오징어류, 해파리류 등을 먹기도 한다.

참다랑어는 근육에 혈액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살이 붉은색을 띤다.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부패하기 쉽고, 죽음과 동시에 체온이 50℃까지 오르면서 몸색깔이 점차 흑색으로 변한다. 따라서 잡는 즉시 머리와 내장을 제거한 뒤 영하 60℃ 이하의 저온에 냉동시켜 수송된다. 지방 함량이 높아지는 12~2월에 가장 맛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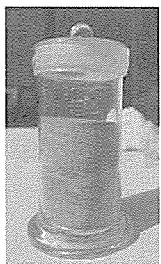
참다랑어는 고단백이면서 저지방, 저칼로리 식품으로 기억력 향상, 학습능력 향상, 콜레스테롤 감소, 치매예방 등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다랑어에는 뇌세포를 증식시킨다는 DHA가 풍부하다. 뇌를 구성하는 지방성분의 10%가 DHA인데, 머리의 기능을 좋게 하는 DHA를 효율적으로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것은 생선류 뿐이며, 특히 참다랑어는 DHA의 보고(寶庫)이다. DHA는 시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DHA의 결핍은 시력의 저하를

초래한다. 참치 속살(아까미)에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은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지방으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본품은 참다랑어의 파쇄육에 식물유(15%), 산화방지제(1%)를 혼합 교반하여 내용량 500g으로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이다.

【세번정정이유】 본품은 참다랑어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는 HSK 0304.90-9000호로 신고하였다. 본품은 참다랑어의 파쇄육에 식물유, 산화방지제를 혼합 교반한 것으로 제0304호에 분류되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 이상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제0304호에 분류될 수 없다.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어류가 조리되었거나 또는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었거나 저장처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조제한 참다랑어가 분류되는 1604.20-9000호로 정정 분류하게 되었다.

사 금



지난 추석 연휴직전 몽골의 사금 채취장면이 TV전파를 타고 있었다. '닌자 광부 열풍'이란 제목으로 내용은 「지금 몽골에는 골드러시, 사금열풍이 불고 있다. 몽골인구 여섯

명중에 한명 꼴로 금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닌자 광부'로 불리는 이들은 직업과 학업을 팽개치고 위험을 무릅쓴 채 불법채굴에 나서고 있지만 몽골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하루 종일 차를 달려도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초원지역에서 갑자기 대규모 천막촌과 마주친다. 말라붙은 계곡을 따라 뻑뻑하게 들어선 몽골 전통천막 게르. 반경 1킬로미터 지역에 수만 명이 모여 산다. 인근 땅들은 쟁기로 갈아엎은것 마냥 곳곳이 파헤쳐져 있다. 구덩이마다 사람들이 들어 있다. 인터뷰 "해 뜨면 나와서 저녁 7시나 8시까지 여기 있어요. 2시쯤에 점심 먹느라고 잠시 쉬어요." 설 새 없이 흙을 긁어내는 작업. 한 자루 찻다 싶으면 물가로 나르고 있다. 플라스틱 대야에 흙과 물을 담아 흔들기를 십여 차례. 가벼운 흙들을 물에 쓸려 보내면 반짝거리는 사금들만 남는다. 다섯 명이 함께 일해서 하루에 얻는 사금은 평균 2그램. 반 돈 남짓한 양으로 우리 돈 2~3만원어치. 다섯 명이 나누면 일인당 5천원 정도 된다. 인터뷰 "일은 괜찮아요. 온종일 일하면 밥값 나올 때도 있고, 그보다 조금 더 나올 때도 있어요."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들 닌자 광부들은 도시의 평균 근로자들보다 30% 이상 더 많이 버는 셈이다. 게다가 운이 좋으면 불법 금덩어리가 박힌 돌들을 캐내기도 한다. 하루에 수십만 원을 벌 때도 있으니 다른 벌이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다. 이들의 별명은 닌자 광부. 사금을 걸러 낼 때 쓰는 대야가 영화 닌자 거북이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데서 유래한다. 몽골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닌자 광부의 숫자는 10만 명. 이 숫자는 몽골 전체 인구의 6분의 1 수준. 이들이 생산해내는 금은 연간 7톤으로 1

억 달러 어치. 몽골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 지난 2001년 몽골의 사막에서 대규모 금광이 발견된 이후 그야말로 골드러시가 일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금 개발이 과연 몽골의 노다지가 될 것인지,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다. 남자 광부들의 자녀들은 중일 흉당물에서 놀고 학교가 없어 배우는 것도, 병원도 구급시설도 없어 병에 걸리기 십상이다. 인구 밀집지역인데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사금채취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몰려드는 곳은 기업이 개발권을 가진 땅이다. 말 그대로 남자처럼 침입해서 허가 없이 금을 캐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몽골의 초원과 사막 아래에는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광물자원이 잠자고 있다。」이다.

대략 위와 같이 몽골의 사금채취 현장에서 화

면과 함께 방영되고 있었다.

사전에서는 사금(砂金 : placer gold)을 「세립상(細粒狀)의 자연산금, 자연금이 함유되어 있던 모암이 풍화작용으로 파쇄 되어, 금의 세립이 하상(河床)이나 해변 중에 집중 퇴적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금·은·백금과 같은 귀금속 광이나 정광(concentrates 精鑛 : 금속광물 중에서 불순물·이물질을 제거한 광석)은 HS 2616호에, 고 순도의 순수한 사금이나 금덩이는 HS 7108의 금(가공하지 아니한 금)에 분류될 것이다. 해설서 7106(가공하지 아니한 은 : 덩어리, 입, 잉곳, 펠레트 등 가공하지 아니한 은 → 맥석으로부터 분리된 덩어리, 괴, 크리스탈 등의 자연 은)참조.

통 · 관 · 뉴 · 스

▶ ASEAN 2007년부터 관세인하 및 관세철폐 시행 합의

ASEAN이 2015년으로 예정돼 있던 관세인하 및 철폐에 대한 스케줄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단일시장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KOTRA 무역관에 따르면 이는 최근 ASEAN 경제장관들이 쿠알라룸푸르에 모여 합의한 것으로 ASEAN 국가간의 11개 선추진분야에 포함된 총 4000개의 수입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ASEAN(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브루나이)의 관세인하 및 철폐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나 ASEAN에 나중에 가입한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은 2012년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관세철폐 대상으로 포함된 11개 선시행분야는 전자, 어업용품, 자동차제품, 섬유제품(TPT), 전자상거래, 의료용품, 항공, 관광, 목재 제품, 농장용품, 고무, 물류 등이다.

또한 ASEAN은 당초 올해부터 축소하기로

했던 비관세장벽 축소일정을 2008년으로 연기하고 축소작업을 2012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합의했다.

금번 ASEAN이 관세인하 및 철폐 스케줄을 당김으로써 ASEAN의 역내 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ASEAN 사무국에 따르면, 2004년 2610억달러이던 역내 교역량이 2005년부터 FTA의 효과로 크게 늘어난 3064억달러로 17.5%나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무역관은 ASEAN 국가중 인도네시아도 이번 ASEAN 단일시장의 창출에서 역내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돼 장기적으로는 득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반면에 다른 ASEAN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5년부터 이러한 상황은 두드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대 ASEAN 총수출량이 108억8300만달러였으나 수입량은 158억2490만달러로 수입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지역 교역추세로 볼 때 현재 ASEAN 단일시장 추진이 인도네시아에 그리 유망한 상황은 아니며, 자칫 해외에서의 경쟁력 상실은 물론 내수시장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ASEAN의 단일경제권 통합이 본 궤도에 이른 이상 인도네시아 제품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자본의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해외 직접투자를 장려해 국내 생산기반의 강화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려는 노력들도 아울러 모색되고 있는 중이다.

▶ 관세청, 관세환급 민원처리기간 대폭 단축

관세청이 수출업체의 자금 지원을 위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환급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환급민원서류도 간소화 하는 등 관세환급제도를 개선, 10월16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규제완화를 통한 환급업체의 편익이 제고, 일선세관의 업무부담이 완화, 부당환급방지를 위한 환급제도 개선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의 금번조치는 종전 EDI시스템과 병행해 2005년 10월부터 인터넷으로도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환급관련 업무처리환경이 크게 개선된데 따른 것으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 6개의 환급관련 신청서의 민원처리기간이 최장 7일에서 당일(또는 즉시)로 대폭 단축된다. 또 세관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앞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울러 관세청은 환급심사대상을 축소해 환급업체 및 일선세관의 업무부담은 완화되되, 부정환급 우려가 있는 외항선 유통공급업체에 대한 환급관리는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일선세관에서 서류로 관리하고 있는 환급관련업무 대장을 모두 폐지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으로 수출업체는 신속 간편하게 환급을 받게 돼 환급신청 등에 따른 기업의 인적 물적 비용의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세관에서는 부당환급 방지를 도모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환급제도란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일단 관세 등을 납부하고 물품 수출후에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1975년 7월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8,476개업체가 2조3,384억원을 환급받았다.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란 수입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후 타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급물품에 포함돼 있는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 인천세관 10월부터 부두직통관 검사전담제 실시

인천세관이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보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남항컨테이너부두 등 주요 부두직통관검사장(CY) 4곳에 세관직원을 고정배치해 부두직통관물품의 통관을 보다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 검사전담제를 2006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금번 부두직통관 검사전담제 시행으로 그동안 세관직원이 세관을 출발하여 보세창고별 장치된 수입물품을 순차적으로 검사하게 됨에 따라 부두직통관물품의 검사시간이 지연되어 야기되었던 수입업체의 불만이 해소되고, 수입검사준비가 완료된 컨테이너화물에 대하여 부두직통관검사장에 상주하는 세관직원이 현장에서 즉시 검사를 실시하고 전산처리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효과(연간 약 12억원)와 통관소요시간이 종전에 비해 1~2시간 정도 빨라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두직통관제도란 부두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이 CFS(창고)를 거치지 않고 즉시 통관되어 수입화주에게 운송, 인도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써, 부두내 화물흐름을 촉진하고 부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 항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인천항을 통해 수입통관되는 부두직통관 물품은 금년 8월말 현재 12만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30%이상씩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인천세관은 부두직통관제도의 활성화 대책으로 컨테이너검색기를 이용한 반입물품의 간이검사를 확대하고, 인천항의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부두직통관검사장에 검사전담직원을 고정배치하여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바로 전산처리토록! 하는 Non-Stop시스템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 9월 수출입 모두 월간실적 사상 최고치 기록

9월 수출이 분기말 실적 개선과 추석연휴를 앞둔 업체들의 수출물량 확대로 '04. 11월(26.5%) 이후 최대 수출증가를 기록했다.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9월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9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2.1% 증가한 299.3억불, 수입은 22.8% 늘어난 279.0억불로 수출입 모두 월간실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20.3억불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월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97.0%)이 파업차질 만회를 위한 수출물량 확대로 대폭 증가한 가운데 철강(38.7%)·석유화학(36.1%)·반도체(23.6%)도 국제가격 강

세 등 업황 호전에 힘입어 높은 수출증가세를 보였다. 또 LCD패널(78.3%)도 패널가격 반등으로 수출증가율이 전월보다 상승했으나, 석유제품(29.7%)은 유가 하락으로 전월대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지역별로는 20일까지 그간 다소 부진하던 對 선진국(24.7%) 수출이 對개도국(26.5%) 수출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중국(23.2%), 일본(22.1%), ASEAN(25.0%) 등 인접시장과 인도(31.0%), 러시아(28.7%), 중남미(47.2%)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출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수입 중 원자재는 원유수입 증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나프타·금속광물·석유화학제품 등 기타원자재 수입 증가로, 자본재는 항공기·반도체장비 등 특수산업용기계, 소비재는 1차 산품·경공업제품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 높은 수입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로 인한 무역수지는 20.3억불 흑자로 전년 동월(18.0억불)대비 2.3억불 늘어났다.

한편 산자부는 4/4분기 수출은 조업·통관일수 부족(전년동기대비 △4일), 전년의 높은 실적 등으로 수출증가율이 다소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으나, 세계 IT경기 회복에 따른 반도체·LCD패널 수출호조 지속, 인도 물량 및 고부가선박 비중 확대에 따른 선박수출 증가 등으로 연간 목표인 3,180억불(11.8%)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수입은 현재의 국제유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증가율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연간 무역수지 흑자도 당초 전망치인 12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관세청, 납세자 보호위해 관세심사제도 대폭 개선

관세청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소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사절차를 개선한다.

이는 관세심사 통지시 안내한 심사분야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거나 소명을 완료한 경우 관세심사를 종결하는 제도로 관세청은 동 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심사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실지심사시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이 연장되며, 납세관계자 출석 사전예약제도 도입된다.

관세청이 최근 수입업체에 따라 수입업체의 관세탈루 위험성, 수입규모 등에 따라 심사방식을 차등화하고 심사대상 선정방법을 보다 객관화하는 등 심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세심사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심사절차를 개선하고, 위법·부당한 심사의 예방을 위해 심사대상업체를 상대로 철저한 모니터링도 실시키로 했다.

금번 관세청의 관세심사제도 대폭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관세 등의 탈루여부에 대한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실지심사로 구분돼 실시되는 등 심사방식의 업체별 차등실시제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현재 실지 심사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관장이 대상업체의 업종·규모·심사범위 등을 고려해 심사기간 및 심사인원 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지심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수입위험도와 수입규모를 토대로 실지 심사

를 구분하고 심사형태별로 심사인원과 기간을 차등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사대상업체 선정방법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심사대상업체 선정기준을 법규 준수도, 산업별·품목별·거래형태별 위험도 등으로 세분화·구체화 함으로써 그 투명성이 제고될 것을 보고 있다. 현재는 수입물품의 특성·신고내용의 위험 등을 고려해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아울러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심사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소명제도가 도입되는데 관세심사 통지시 안내한 심사분야에 대해 납세자가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하거나 소명을 완료한 경우 관세심사를 종결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관세청은 동 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심사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실지심사시 대상업체에 대한 사전통지 기한도 현행 심사개시전 7일에서 심사개시전 10일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납세관계자 출석 사전예약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납세관계자가 편리한 날에 세관에 출석해 자료 설명 등을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도입 등 출석요구절차가 마련되는 것으로 업체에 대한 심사개시 및 심사결과 통지시에 관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을 문서로 안내받게 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옴부즈만 모니터링이 제도화 된다.

▶ 양봉사료용 화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돼

관세청은 가공되지 않은 양봉사료용 화분(관

세율표 제1212호), 일명 꽃가루 수입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동 조항에서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1]에서도 양봉사료용 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한국을 주요 FTA협상대상국으로 지목해

10월 9일 런던 정경대에서 열린 연설에서 피터 만델슨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한국을 주요 FTA협상 대상국으로 지목함에 따라, 최근 우리정부가 EU측과 벌이고 있는 한-EU FTA 예비협의를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다자간 무역질서에 대한 각국의 동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ASEAN·인도·러시아 등 주요국들과 함께 양자간 FTA를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지난 5.15일 필리핀에서 개최된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EU FTA 추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자는 합의이후 양국은 7.19~20(브뤼셀), 9.26~27(브뤼셀) 등 2차례에 걸쳐 예비협의를 가진 바 있다. ㉟